

韓國服飾에 表現된 흔들림과 떨림의 美

梨花女大 衣類織物學科
講 師 琴 基 淑

目 次	
I. 序 論 II. 韓國服飾에 表現된 흔들림과 떨림의 實證 1. 三國時代 服飾 2. 統一新羅時代 服飾 3. 高麗時代 服飾 4. 朝鮮時代 服飾	5. 現代傳統韓服 III. 흔들림과 떨림의 美學的 照明 1. 흔들림과 떨림의 美學的 位相 2. 흔들림과 떨림의 美學的 本質 3. 흔들림과 떨림의 美學的 形式 IV. 結 論 ABSTRACT

I. 序 論

복식은 개인적으로 착용자의 개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해당시대의 사조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복식연구는 복식현상에 내재한 당시대인들의 가치관 내지 시대정신을 추출하여 현대에 조명함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한국복식은 일반적으로 형태나 색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소박하며 조출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미적욕구를 표출하고 구현시키기 위해 착용된 장식구조차도 순수 장식적 목적으로 사용된 것보다는 기능적 혹은 주술적 용도라는 뚜렷한 명분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한국복식이 일견 치장이나 장식 행위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미학적 관점에서 고찰해 볼 때에는 그 자체가 다른 국가복식과 구별되는 미적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국복식의 미적고찰은 복식의 형태나 색채, 소재, 문양 등 여러 조형요소를 통해 분석되는 방법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본고에서는 복식의 형태에서 부각되고 있는 흔들리고 떨리는 動的인 양상에 관심을 집중시켜 고찰해 보고자 한다.

本 研究에서 論題로 삼은 “흔들림”과 “떨림”은 “흔들리다”와 “떨리다”의 명사형으로 우선은 관찰 대상의 율동적 양상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흔들리다”는 “흔들다”의 피동형으로 “위 아래 나 또는 양옆이나 앞뒤로 연해 움직이게 하다(shake), 어떤 고정된 상태를 동요시키다.(rattle)”의 의미를 갖는 용어로 本 研究에서는 주로 수직으로 늘어진 袴帶의 腰佩나 노리개의 술 등이 좌우전후로 유연하게 움직이는 모양을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떨리다”는 “공기의 흔들림이나 다른 힘의 충격을 받아 어떤 물체가 매우 작은 폭으로 빠르고 탄력 있게 계속 되풀이 하여 흔들려 움직이다(tremble)”라는 의미를 좇아 흔들림 보다는 작은 율동을 나타내는 용어로 채택하여 사용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시대 寶冠류에 부착된 영락장식들의 움직임이나 조선시대 떨잠의 떨쇠가 보여주는 잔잔한 율동 등은 떨림의 용어에 가장 합당한 예가 된다.

본 연구의 흔들림과 떨림은 착용자의 움직임의 전제로 하고 전체 복식과 함께 혹은 별도로 나타나는 動的인 양상이기 때문에 전체 복식표현에서 차지

하는 부분은 미약한 부분이라 할 수도 있다. 또한 그 실증적인 예로는 구체적으로 흔들림과 떨림이 함께 흔들림과 떨림이 연상되는 관념적인 대상도 포함된다.

연구대상으로는 한국복식사의 숲 시대에 해당하는 복식을 고찰하여 흔들림과 떨림이 한국복식미의 범위 안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파악하고자 했다. 고찰대상은 고구려, 백제, 신라 등의 삼국시대 복식을 시작으로 하여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의 복식에 이르는 동안 표현되는 흔들림과 떨림의 실례들이 되겠고 나아가 현대 한복도 고찰 대상에 포함시키므로 흔들림과 떨림의 지속적인 전통성에 대해서도 고찰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고찰된 복식의 흔들림과 떨림에 작용된 당시대인들의 미적가치와 미의식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흔들림과 떨림이 어떠한 미학적 위상을 가지며, 가시적인 울동에 내재된 미적가치는 무엇인지, 흔들림과 떨림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 美, 美意識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고찰을 병행시키므로써 한국복식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자 한다.

II. 韓國服飾에 表現된 흔들림과 떨림의 實證

1. 三國時代 服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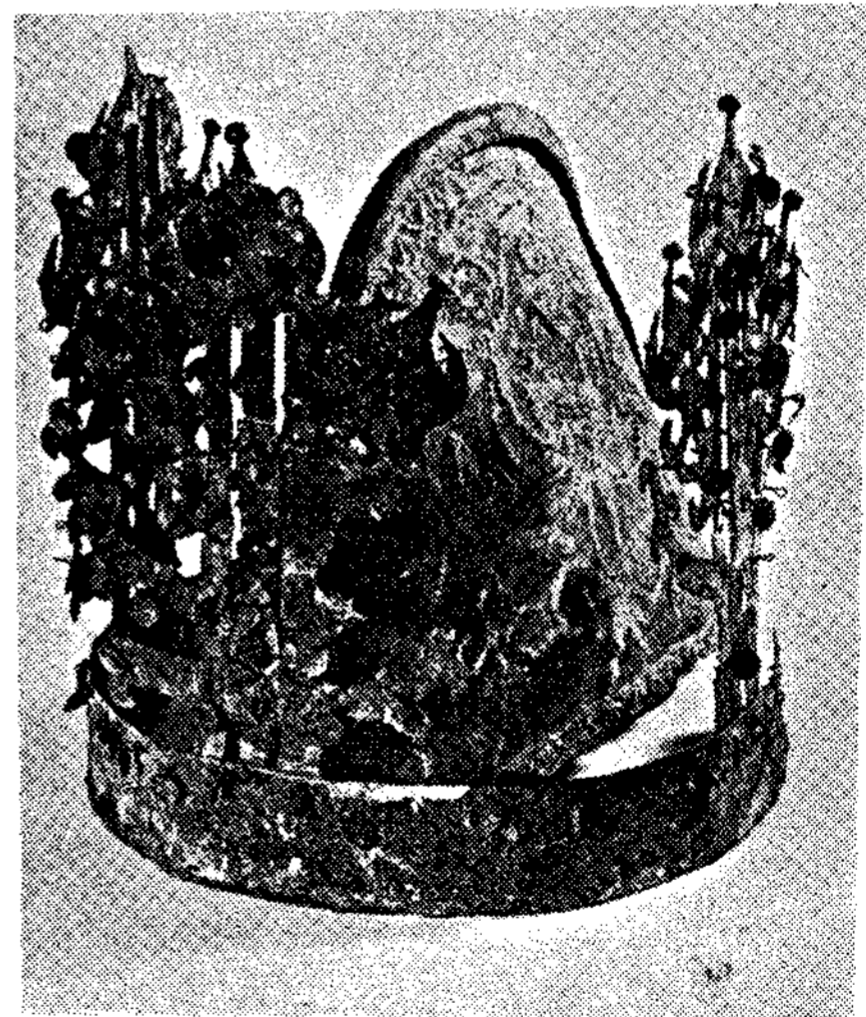
흔들림은 주로 의복에 부착된 帶나 옷자락의 모습에서 보이고 떨림은 冠이나 의복에 장식으로 붙은 瓔珞에서 쉽게 발견되고 있다. 고구려 복식에 나타난 흔들림과 떨림은 먼저 고분벽화의 인물들이 착용하고 있는 복식에서 쉽게 관찰된다. 무용총 主室 東壁 廚房에 보이는 여인³⁾의 허리끈은 비껴서 뒤쪽으로 묶여있는데 커다란 고가 동반되어 그 길이가 필요 이상으로 긴것을 시사하고 있어 흔들림이 예상된다.

같은 壁面의 무용수들이 착용한 유(襦)나 袍의 긴 소매도 흔들림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⁴⁾ 손을 덮은 긴 소매는 汗衫과 같이 무용의 동작에 따라 흔들림이 부각되므로 무용에서도 흔들림의 울동은 그 자체가 미적표현의 하나로 감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金銅冠의 전체적인 문양은 古拙한 느낌이

드나 각 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瓔珞장식들은 떨림을 보여주는 좋은 실례이다. 瓔珞이 加飾된 관의 착용 모습은 벽화의 鎧馬塚 玄室 西壁 千井 받침 1층의 鎧馬圖의 人物이 착용하고 있는 寶冠圖에서 확인되고 있다.⁵⁾ 冠에 부착된 立飾에는 曲玉으로 추정되는 녹색과 영락으로 추정되는 적색계의 장식이 부착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인 형태는 신라시대의 금관을 연상시킨다. 장식의 용도로 활용되었던 영락은 부여시대 귀걸이라고 여겨지는 上代의 유물⁶⁾에서도 발견되고 있어서 미적표현의 한 요소로 애용되었던 것이 확인 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흔들림과 떨림의 조형적 특징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애용되었던 조형적 표현방법의 하나로 그 사용연대가 올라가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흔들림과 떨림은 百濟服飾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百濟의 冠인 羅州潘南출토의 金銅冠(圖 1)에 장식된 많은 영락들도 떨림의 미적효과를 활용하고 있는 예이다.⁷⁾ 金銅冠은 寶冠으로서 당시대의



〈圖 1〉 羅州 潘南의 金銅冠(중앙국립박물관)

원형을 알아 볼 수 있는 유일한 출토품으로 外冠과 內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外冠은 臺輪形의 테를 만든 후 前面과 左右에 3개의 樹木形 立飾을 못으로 박아 세웠고 전면에 걸쳐 영락을 부착하여 떨림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금동관의 외관에 부착된 수목형 立飾과 영락장식이 부착된 양식은 BC2~3

세기의 유물인 아프칸의 黃金製冠⁸⁾과 유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중앙아시아와의 교류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그中 박트리아 왕조의 공주(25-30세)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에서 발굴된 黃金冠(圖2)은 하늘로 솟아오른 팔메트 형태의 황금조각과 다수의 영락장식들이 부착되어 있다.



〈圖 2〉 박트리아 공주의 금관 출처: [National Geography]

圖2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아시아 금관의 영락은 전면에 충전하듯이 부착되어 金色의 현란한 아름다움과 함께 화려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비해, 한국 금관의 영락은 장식표면에 띄엄띄엄 부착되어 있어 화려한 가운데에서도 소박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러한 조형적 특징은 한국 造形 예술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의 하나로 영락장식의 한국적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흔들림과 떨림은 부여 武寧王陵의 유물들에서도 적극적으로 애용되고 있다. 두 줄의 垂飾을 달고 있는 細環式 金製귀걸이⁹⁾는 떨림보다는 흔들림이 강조된 예라 하겠다. 이와 같이 이환에 부착된 두줄의 장식은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흔들림을 보여주는 요소가 되며 부분 부분에 부착된 영락은 떨림을 보여 준다. 떨림을 보여주는 영락장식은 왕의 金冠飾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冠飾 주위에서 발견되는 花形의 금장식, 鋸齒形金장식 등도 관모에 부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영락장식의 증가는 그만큼 떨림의 표현이 강화되고 화려함이 증가되어 國王의 위엄이 강조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¹⁰⁾ 왕의 金花에 분산되어 부착된 127개의 영락들은 금사로 꼬아 매달리므로써 그 화려함을 더하고 있다. 이에 비해 왕비의 金製前後 金花에는 영락이 가식되어 있지 않아서 이들 영락장식들은 金花의 미적효과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외에도 착용자의 권위와 지위를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¹¹⁾ 떨림을 보여주는 영락들이 장식대상의 아름다움을 상승시키는 미적요소로 작용했다는 구체적인 실증은 金銅飾履의 바닥과 측면에 부착된 영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金銅飾履에는 바닥에 붙은 9개의 스파크와 영락, 그 내부에 있는 木皮 등으로 보아 실용품이라고 하기 보다는 葬禮用의 副葬品이었다고는 하지만 장식의 수단으로도 영락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는데 당시대인들의 표현의지가 감지된다.

新羅時代 服飾에 나타난 흔들림과 떨림은 金製裝身具類에서 극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古新羅의 대표적인 금관을 비롯한 여러 金冠은 臺輪前面 左右側에 두 줄의 긴 垂飾이 부착되어 달려있어 흔들림이 부각된다. 垂飾에서 보이는 흔들림은 금관의 全面에 분산되어 부착되어 있는 영락장식의 떨림과 조화를 이룬다. 작은 원형 금관 영락은 가늘은 金絲로 금관에 부착되므로써 그 표면이 불규칙적인 방향을 하게 되고 사용 소재인 金의 색채와 광선의 효과에 의해 명멸하며 반짝거리는 빛의 흔들림도 창출하게 된다. 떨림을 보이며 부착된 曲玉은 金色의 강한 光彩에 玉의 부드러운 色調를 加하여 一層 착용자의 복식미를 증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¹²⁾ 玉은 金冠 장식에서 미학적으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垂飾이나 瓔珞을 통한 흔들림과 떨림이 三國時代의 금관류에서 미적표현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李如星은 [朝鮮服飾考]에서 “多數의 金板 瓔珞이 垂飾되어 있으므로 着用者の 動止에 따라서 静止할 때에는 수플과 같이 고요하고 動作할 때에는 춤추는듯 輝煌한 것이다. 그런 故로 金冠은 一動一靜에 [리듬]이 나타나 着用者の 微動까지를 잘[인타-프레테-손]하는 것으로 冕冠의 旒珠보다도 더욱 아름다운 靜動의 美를 表現한다.”¹³⁾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미적특징은 腰佩를 동반한 袴帶에서도 발견되는 공통적인 미적 특징으로 흔들림과 떨림이 강조되고 있는 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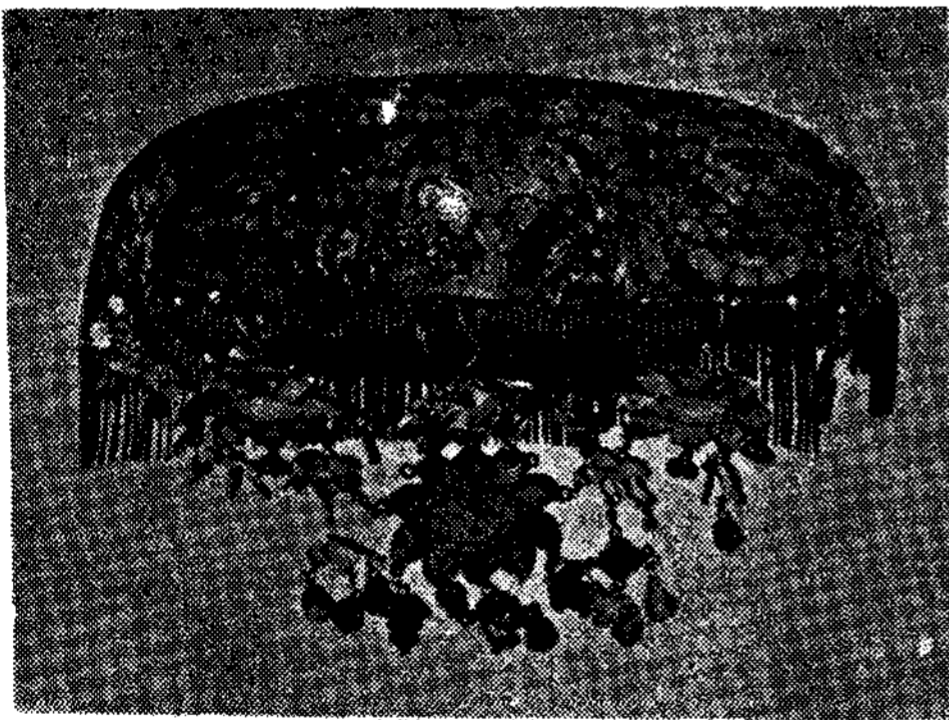
2. 統一新羅 時代 服飾

三國의 統一을 주도한 新羅는 三國의 文化를 받아들여 난숙한 文化를 꽃피웠으나 眞德王 3年 正月에

“始服中朝衣冠”이라하며 중국의 관복제도를 받아들인 이로서, 한국복식문화의 입장에서 볼 때, 고유의 복식제도가 소홀하게 취급된 점이 있다. 寶冠인 金冠類는 복두로 바뀌고 요패가 화려했던 과대는 옥판이나 기타 장식이 부착된 혁대로 바뀌므로 흔들림이나 떨림의 요소는 감소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興德王服飾禁制]에 등장하는 裱는 긴 흐름을 보여주는 실증으로 제시할 만 하다. 표의 착용은 중국 唐시대의 여성 복식에 등장하는 披帛이나 일본의 領巾의 착용모습과 유사한 형식을 보여준다. 서아시아 지역과 韓國, 中國, 日本 등에서 공통적으로 착용되었던 점으로 보아 표의 착용은 국제적인 성격이 강했던 당시대 패션의 하나로 보인다.¹⁴⁾ 이러한 사실은 경주 출토의 토용에 표현된 복식에서도 확인되며,¹⁵⁾ 부드러운 실루엣의 흐름과 여유있는 의복 형태에서 관찰자로 하여금 흔들림을 연상하게 한다.

裝飾빛(圖3)도 흔들림을 보여주는 실례로서 주목된다. 이 빛은 化形의 장식들이 별도로 부착되어 있는 작식용으로 머리에 꽂게 된 玳瑁製빛이다.



〈圖 3〉 통일신라시대의 장식빛(개인소장)

손잡이 부분에는 金絲로 各種 꽃무늬를 象嵌하고 그 속에는 靑玉을 嵌入하였다. 직각으로 꺾인 손잡이 부분에 작은 구멍을 뚫어 靑玉을 嵌入한 金製花形裝飾을 매달고 있다. 수식으로 부착된 여러개의 花形裝飾들은 가운데가 아래로 길게 늘어져 있고 양옆은 짧게 달려서 6角形을 이루고 있다.¹⁶⁾ 전체적으로 역삼각형을 이루는 金製花形의 垂飾은 大小의 花形이 金絲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착용자의 움직임

에 따라 흔들림을 보여주게 된다.

3. 高麗時代 服飾

한국복식사 中 高麗時代는 복식에 대한 문헌이나 유물들이 가장 희소하여 일종의 공백기와 같은 시기이므로 服飾美를 충분히 고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므로 흔들림이나 떨림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실례를 구해보기 어려운 시기이다.

이 시대는 다만 문헌에 등장하는 화관이나 古古里 등의 언급을 통해 당시의 복식에 존재했었을 흔들림이나 떨림의 흔적을 추정해 볼 수 있을 뿐이며, 女性의 袍에 착용한 허리띠의 묘사에서 흔들림의 흔적이 감지되는 정도이다. 그 당시에는 袍에 檜欖나무 문양이 있는 허리띠(檜欖勒巾)를 매었고, 허리띠에는 5色の 찬란한 采條로 金鐸(금방울)을 매어 달았으며, 또 麝香같은 香料를 넣은 錦囊 등을 찾는데, 이러한 佩物이 많은 것을 귀히 여기고 자랑으로 삼았다고 한다. 이 采條나 금택이나 향낭은 신라 이래의 전통으로 보는데 여자의 帶가 袍나 襦에서 없어진 조선왕조에 있어서는 이러한 佩物을 고름에 맸게 되어 있었으므로, 이것들은 당시 女人들이 즐겨 찾던 [노리개]의 祖形을 연상케 하기도 한다. 그리고 [高麗圖經]에는 또 “손에 부채(扇)를 들었다 하더라도 손톱을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 하여 흔히 絳囊으로 이를 덮었다.”¹⁷⁾라 하고 있다. 이 絳囊은 마치 조선시대 여인의 袍衫에 달린 汚衫과 같은 것으로 추정될 때,¹⁸⁾ 앞의 복식표현과 함께 소매의 끝부분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된다.

이와 같은 기록과 언급으로 미루어 그 당시에도 흔들림이나 떨림이 장식의 한 표현으로 애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4. 朝鮮時代 服飾

朝鮮服飾에 표현된 흔들림은 먼저 풍성한 형태의 道袍에 부착된 展衫, 도포 위에 착용된 광다회나 세조대 등의 帶類를 통해 구현되고 있다. 도포의 전삼은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흔들림을 보여주며 그 위에 착용된 세조대는 술속에 첨부한 호패의 무게로 인하여 아래로 늘어져서,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흔들림의 미학을 고조시킨다. 실용성을 넘어선 긴 갓끈과 선비의 사치와 호사스러움을

나타냈던 纓字의 긴 늘어진 모습도 흔들림을 연상시키며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함께 움직이는 흔들림을 보여준다. 사대부들이 즐겨 휴대하고 다닌 부채의 선추도 길게 늘어진 형태적 특징으로 인해 흔들림을 보여 준다. 선추는 여러 문양의 시문과 나침판과 같은 일상용품의 부착으로 인해 실용성이 인정되는 한편 부채를 부칠 때 야기되는 동적인 흔들림으로 인해 부채 주변에서 형성되는 바람의 실체를 가시화 하는 듯하다.

여성의 의복도 예외는 아니어서 신체의 하반신에 둘러 입은 치마를 비롯하여 저고리의 앞을 여미는 옷고름, 치마 위에 늘어진 치마끈 등을 통해 흔들림의 특징을 보여준다. 머리에 부착된 댕기의 형태감이나 가슴 앞에 늘어져 있는 긴 형태의 노리개의 술에서도 같은 분위기가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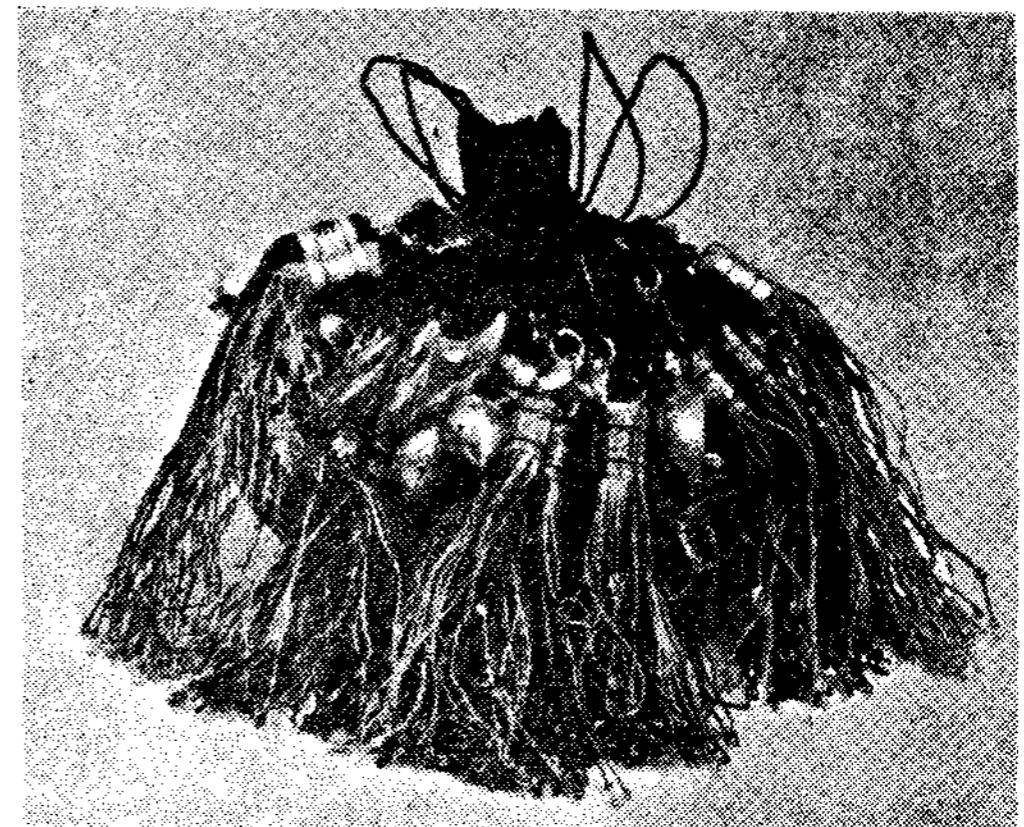
특히 蕙園의 風俗畫에서 劍舞를 추는 여인의 모습에는 치마저고리 위에 덧입은 전복자락과 전모에 부착된 공작미에서 흔들림의 요소가 강화되어 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의복의 각 구성 요소들은 舞姬의 동작에 의해 흔들리며 펄럭이며 흥에 겨워 춤을 추는 여인의 자태를 더욱 신바람나게 강조해 준다. 무희들이 舞服에 착용한 백색 혹은 색동의 긴 汗衫도 무용의 아름다움을 상승시키기 위해 도입한 舞具로 애용되었으며, 승무와 살풀이춤에 사용된 백색의 긴 한삼 역시 흔들림을 이용하여 무용의 내용을 완결하려 한 의지가 엿보인다. 이러한 적극적이며 動的인 흔들림은 단오날 그네 뛰는 미혼여성의 댕기들인 긴 땡은 머리에서도 발견되는 조형적 특징이다.

의복에 보이는 흔들림의 특징은 장신구에서 더욱 직접적이며 강조된 양상을 보인다. 혜원의 미인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옷고름이나 댕기, 치마끈 등이 늘어진 위에 긴 술을 부착한 노리개의 착용은 흔들림의 속성을 강화하고 있는 듯 하다. 여인들이 장신구로 애용했던 노리개의 형태는 흔들림의 형태적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좋은 예이다.¹⁹⁾

띠돈(帶金), 主體(三作 또는 單作), 술(絲線)로 이루어진 노리개는 술의 형태를 통해 이미 흔들림의 요소를 암시하고 있다. 어떠한 종류의 노리개에서도 이 술의 요소가 필수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노리개의 주체를 장식하기 위해 술이 필연적인

요소로 애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술의 종류로는 ‘봉술’, ‘딸기술’, ‘방망이술’, ‘끈술(낙지발술)’, ‘방울술’, ‘전복술(戰服술)’, ‘금전지술’, ‘잔술’, 등 다양하다. 술의 구성에서도 보면 딸기술, 봉술, 방망이술 잔술등은 보통 두줄의 술로 구성된 쌍술을 사용했는데, 술의 숫자에 의해 명명된 三봉연술, 五봉연술, 七봉연술 등의 명칭과 사용은 당시대의 술을 애호한 정도를 잘 시사해 주고 있다.²⁰⁾ “일반적으로 [노리개]의 다양한 [매듭] 부분은 짧은 저고리 길이를 닮았으며, [술]의 부분은 긴 치마 길이를 닮았으면서 장식을 이루는 관계는 매우 재미롭고 흥미롭다 아니 할 수 없다.”²¹⁾라고 하고 있듯이 노래개에 부각되어 있는 흔들림의 형태적 특징은 여인의 치마, 저고리의 형식감정과 유사한 것으로 인정된다. 여인의 치마를 술의 형태감과 대비시킨 발상은 술의 흔들림이 주는 형태적 특징이 여인의 치마와 같은 감정으로 감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흔들림이 부각된 술장식은 노리개 뿐만 아니라 침낭, 향낭, 발향, 장도, 주머니(囊)(圖4)등의 장식으로도 사용되고 있다.²²⁾ 장식요소는 흔히 반복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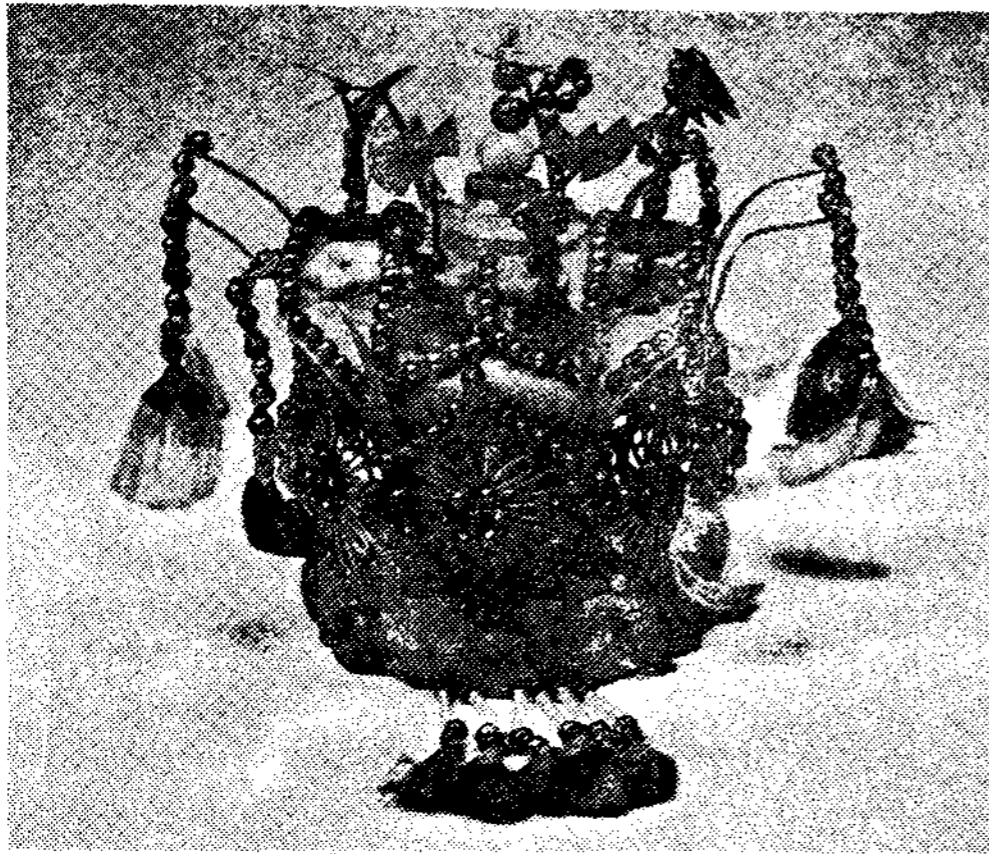


〈圖 4〉 금장식 두루 주머니(동경국립박물관)

성격을 가지고 과장되며 응용되기 마련이므로, 술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형질조각들이 술을 대신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긴 형태로 흔들림이 야기되는 형질조각은 그 자체가 하나의 장식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형질조각의 數的 증가는 장식요소의 증가로 이해되고 이를 통한 사용자의 장식의지의 정도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흔들림이 상대적으로 떨림보다 큰 움직임으로 여유자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떨림은 작고 잔잔한 움직임으로 하늘거리며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떨림의 예는 조선복식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특히 족두리, 화관, 떨잠, 비녀, 머리꽂이 등에서 쉽게 발견된다.

화관(圖5)은 흔히五色구슬로 찬란하게 꽃을 둘러싸고 나는 나비를 하늘거리게 매달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²³⁾ 앞의 표현에 묘사된 것과 같이



〈圖 5〉花冠(태평양 박물관 소장)

하늘거리게 매달 떨쇠 나비의 움직임은 화관을 더욱 생동감있게 했음직하다. 화관의 둘레에는 여러개의 구슬로 장식하였고 관의 측면과 지붕부분은 화관을 부착한 후 그 위에 용수철 형태의 가지를 위로 향하게 하고, 그 위에 나비와 꽃들이 매달려 있다. 용수철의 위에 부착된 나비와 꽃의 형상들은 착용자가 움직일 때마다 용수철의 움직임에 따라 잔잔하게 떨리게 된다. 화관의 앞부분의 맨 아래쪽에 부착된 구슬줄들에도 끝에 작은 술들을 착용자의 이마 위에 흘러내리도록 계획되어 있어서 떨쇠인 나비들의 떨림과 조화를 이룬다.

떨림의 양상은 대례복의 관모인 화관과 족두리뿐만 아니라 머리장식인 떨잠과 뒤꽂이, 비녀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떨철반자라고도 불리는 떨잠은 그 명칭이 암시하는 것같이 각종 떨쇠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²⁴⁾ 떨쇠의 방향은 대체적으로 위를 향하고 있고 섬세한 용수철로 연결되어 있어 움직임에 민감하여 떨림을 보인다.

5. 現代 傳統 韓服

현대 전통 한복은 조선복식의 기본구조를 기준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현재 전통 한복의 조형요소이며 미적특징이 되기도 하는 복식의 형태, 색채, 문양, 소재 등은 전통적인 특징을 고수하면서도 그 세부에 있어서는 현대 패션의 영향에 의한 현대 감각이 가미되고 있다.

현대 전통한복에도 흔들림과 떨림의 조형적 특징은 여전히 건재한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말기에 이르기까지는 허리주위의 기장을 유지하던 옷고름이 1970년대로 들어오면서 착용자의 무릎 아래로까지 내려오도록 길어진 것은 실용성과는 무관한 순수 장식적인 동기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길어진 옷고름은 복식의 일상에 변화를 주는 움직임의 율동성을 창출하여 생동감을 부여하며 변격을 구현시킨다. 여기에서의 율동은 긴 옷고름을 통하여 나타나는 흔들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흔들림은 다시 치마 띠를 저고리의 앞중심 부위에서 늘어뜨리므로서 반복되고 강화된다. 반복된 긴 띠들의 율동은 흔들림의 특징을 강조하게 된다. 띠들의 움직임들은 흔들림의 효과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치마 띠의 형식을 채용하여 부착한 앞중심의 긴 띠는 실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않는 긴 띠일 뿐이며 이 백색 띠의 아래 쪽으로부터 刺繡를 하여 한층 고급스럽게 치장을 하고 그 위에는 노리개를 엮어서 착용하므로서 세칭 香帶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그러므로 이 香帶의 기능은 복식의 미적효과를 높이기 위한 순수한 장식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 한복에 착용했던 노리개도 역시 흔들림의 효과를 복식미의 하나로 활용한 좋은 예가 된다. 여성들이 한복에 착용한 노리개는 조선시대에서도 흔들림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로 표현되었었는데 현대에는 노리개의 술은 물론이고 노리개 본체의 길이를 길게 하여 흔들림의 효과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조선시대의 노리개는 주체가 하나이던 것이 현대화된 노리개에서는 여러 개의 주체가 세로로 연결되어 주체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계속적으로 술을 연결하므로써 그 길이는 더욱 길게 강조되어 흔들림의 움직임이 연상된다. 이것은 장대화해진 옷고름과 함께 흔들림의 미학이

고조된 흔들림의 현대화로 이해된다.

Ⅲ. 흔들림과 떨림의 美學的 照明

1. 흔들림과 떨림의 美學的 位相

흔들림과 떨림의 조형적 특징은 복식의 기능적 요구에 의해 출현한 형태적 특징이라고 하기보다는 장식적 동기에서 출발한 미적 특징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대개의 장신구들이 복식으로서의 실용성이 전제가 되기는 하지만 흔들림과 떨림은 복식에서 요구되는 기능성이나 실용성과는 무관하게 장식의 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점에서 순수한 미적의지가 표출된 미적표현의 하나라 하겠다.

三國時代의 寶冠類에 부착된 영락이나 곡옥은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표정이 연출되는 미적특징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떨림의 요소들은 금관의 기능성이라든가 실용성과는 무관하게 보이며 오히려 부착된 장식대상의 미적효과를 높이는 장식적 동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 애용된 金板의 瓔珞장식은 金色의 화려함을 살리기 위하여 필요하였을 뿐더러 형태의 單調를 깨는데도 효과적이라고 한 해석을²⁵⁾ 볼 때에도 떨림을 장신구에 활용한 목적은 착용자의 美관을 고려한 결과로 추정된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족두리나 화관, 떨잠 등의 떨쇠에서 확인되는 특징으로 여기에서도 역시 착용자를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부착한 순수한 장식의지가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능성의 명분에서 출발하면서도 순수 장식성과 기능성이 함께 충족된 하나의 예로는 저고리의 고름을 들 수 있다. 조선시대 중기의 풍속화에서 보이고 있는 저고리의 옷고름은 그 길이와 넓이가 짧고 좁아서 옷을 여미는 기능을 충족시킬 뿐이었는데, 末期로 오면서는 그 길이와 폭이 길고 넓어지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계속되어 현대 저고리의 옷고름에 이르러서는 너무 장대해져서 활동성이 약화된 비실용적인 일면까지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복의 긴 옷고름을 통하여 부각되고 있는 것은 흔들림으로, 흔들림 자체가 복식 전반에 변화를 야기시키며 순수한 장식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노리개의 술이나 갓의 纓子, 선비들이 착용했던 세조대의 술장식 등도 실용성이나 기능성의 요구를

넘어서 복식의장의 용도로 활용된 예들이다. 이 장식들의 조형적 특징은 역시 흔들림의 강조라 하겠다. 이들 장식들은 흔들림을 부각하느라 착용자의 미적효과를 상승시키는 동시에 그 자체의 율동도 즐겼던 것으로 생각된다. 복식에 표현된 흔들림과 떨림의 美的의지는 다른 조형예술 분야에도 작용하여 삼국시대 高杯에 加飾된 영락장식, 건축물의 풍경 등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흔들림과 떨림을 통해 표현하려한 당시대인들의 의지는 기능이나 실용의 목적보다는 주술적 동기에서 혹은 순수한 장식적 동기에 근원한 미적태도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의복에 첨가하는 장신구나 직물에서의 문양이 갖는 것과 같은 동등한 미학적 위상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2. 흔들림과 떨림의 美學的 本質

흔들림과 떨림의 효과를 부각시킨 요소들인 술장식이나 영락들은 실용성보다는 미적동기의 산물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표현하고자 한 미적가치는 무엇이었는가 관심의 초점이 된다. 삼국시대 寶冠類에 부착한 영락의 떨림들은 장식 대상이 왕이나 왕족들의 상류층에만 국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반인들과는 외견상으로 보아 구별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보관류에 부착된 영락의 흔들림은 상류층에만 국한 시키므로써 착용자의 권위와 위엄을 암시하는 신분상징으로 애용되고 있다. 한편, 보관류가 북방민족의 샤먼들의 頭飾에서 유래했다고 할 때 주술성이 내재한 辟邪의 美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삼국시대의 특수계층이 착용했던 보관은 권위와 위엄을 강조하고 착용자의 지위나 영향력까지도 의미하므로, 金冠 瓔珞의 떨림은 착용자의 신분을 암시하는 상징성을 본질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승무복에서 애용된 긴 한삼이나 살풀이 춤에 활용된 긴 백색의 한삼 등은 춤의 율동 가운데 흔들림으로 표현되어 무용가의 표현의지를 나타내고자 한다. 巫服의 경우에는 방울의 떨림이나 한삼의 흔들림을 통해 제의적인 절차를 강조하므로 무당의 巫服에는 역시 巫俗의인 辟邪의 美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僧舞가 단순히 인간의 고뇌를 표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희망을 가득히 안고 앞날을 기원하

며 한(恨)의 비탈을 넘어서서 長衫으로 표출되는 자유와 구원의 춤이라고 할 때,²⁶⁾ 승무의 춤사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한삼의 흔들림은 신앙의미를 강하게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조선복식에 애용된 흔들림과 떨림에는 풍류사상과 자연주의의 경향이 혼합되어 있다고 본다. 웃고름이나 노리개의 술장식이 자연의 흔들림과 조화를 이루고 울동을 부여하여 착용자의 모습에 생동감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자연미의 개념에 부합한다. 自然美의 개념에는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 자연으로 부터 선택내지 모방해 온 것,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 자연의 이치를 터득하여 활용하는 것 등이라고 할 때,²⁷⁾ 금관의 영락장식이나 떨잠의 떨쇠 장식들도 잔잔한 미동을 통해 착용자에게 생동감을 부여하고 착용자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부각시키게 되므로, 흔들림과 떨림의 형식은 자연미의 한 표현방법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흔들림과 떨림에 내재한 미학적 본질은 복식의 용도와 착용자의 직위에 따라서 각각 합당한 미적가치를 표방하기도 하지만 상고시대 부터 지속적으로 주도해 온 美的意志는 自然美라고 할 수 있다.

3. 흔들림과 떨림의 美學的 形式

흔들림과 떨림은 변격의 美인 멋의 한 표현방법이라 하겠다.

美的 표현방식인 멋은 美的價値나 美的特徵의 一面이 고조되거나 정상성을 변형시킨 變化와 이를 다시 전체와 질서를 이루도록 하는 調和의 두 가지 구조적인 개념 요소로 이루어 진다.²⁸⁾

첫째 요소인 변화와 변격은 통달과 완숙에 근원을 둔 변화와 변격이며, 구체적으로는 비정형, 비규격, 비정상, 예외, 돌출, 첨가, 긴장, 여백, 울동, 생동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정형성, 규격성, 전통성으로 부터의 변형, 변격이기만 하면, 정반대로 보이는 개념들이 모두 일단 멋의 첫째 요소를 충족시키게 된다. 성장을 한 신부의 화관 떨쇠의 떨림과 노리개 술의 흔들림은 동적인 특징을 가지며 울동미를 특징으로 갖는다. 남성복에서도 마찬가지로 술이 달린 帶類, 부채의 扇錘, 갓의 纓子 등은

모두 부착된 부속 부분으로서 착용자의 울동에 따라 흔들리는 울동적인 흐름을 야기시키므로서 일상적인 복식에 변화를 주는 요소들이다.²⁹⁾

멋은 變格이지만 모두 변격이 멋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신적 완숙과 여유에서 연원하는 변격만이 멋이 된다는 점에서 精神美의 일면이 있다. 한편 통달과 완숙으로 부터 자연스럽게 발현된 변격만이 멋이 되는 것이며,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作出은 멋이 아닌 과장과 속기에 불과하다는 점에서³⁰⁾ 멋은 自然美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일면도 갖는다. 그러므로 멋은 내고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내어지고 부려지는 것이며, 안에서 풍기고 우러나는 것이라 하겠다.³¹⁾

둘째 요소인 調和와 지나침이 없다는 것은 방탕하지 않은 절제, 한계, 자제를 통해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格,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³²⁾ 선비들의 비틀어진 갓의 모습이 멋이 되지만, 지나쳐서 절제와 조화를 잃을 경우에는 이미 멋은 사라지고 방탕과 타락만이 있을 뿐이다. 다만 조화와 절제는 변화와 변격이 어떤 한계 속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극적 개념이기 보다는 변화와 변격이 자연스럽게 조화 속에서 발현될 때 멋이 된다는 좀 더 적극적인 요소로서의 杼昂스를 풍기는 概念이다.³³⁾ 이러한 杼昂스는 변화와 변격이 통달과 완숙에서 유래된 자연스러운 변격일 때에만 멋이 될 수 있다는 첫째 요소와 표리 관계에 있다.

흔들림과 떨림이 보이는 三國時代 금관이나 과대 등은 靜的인 복식의 표면에 변화있는 움직임은 동반하므로써 착용자의 품위와 위엄이 있는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영락장식의 부착이 單調를 깨뜨리는 미적의지의 산물이라고 할 때, 단조를 깨뜨리는 것은 일상적인 장식공간에 변화와 파격을 부여하는 멋의 첫번째 요소가 된다. 그 후 이들 변화와 파격이었던 영락이나 장신구들이 다시금 전체 복식과 조화를 이루므로 멋의 두번째 요소가 충족되고 있다. 이렇듯 靜的인 장식공간인 복식표면에 動的인 요소를 부여하므로써 울동과 생동감을 형성하지만 전체의 복식과 조화를 이루는 한, 멋의 두 가지 기본요건이 충족되므로 흔들림과 떨림의 장식과 음미는 그 당시의 멋이었다고 본다.

한복 저고리의 긴 옷고름이 바람에 훑날리는 모양

도 의복의 본체에 변화를 시도하므로써 주의를 환기시키지만 옷고름의 크기나 길이가 지나침이 없이 의복전체와 조화를 이루므로 韓服의 멋으로 부각된다.

이러한 변화와 조화는 한복의 깃이나 도련, 배래 등의 구조선에 보이는 곡선의 미에도 내재하고, 정갈한 한복의 색채에 의외로 등장하는 원색이나 색동의 조화미에도, 소색이나 地紋에 의해 단조로워 보이는 복식의 표면에 출현한 화려한 紋樣에도 작용되어 있는 공통적인 멋의 한 형식이다.

IV. 結 論

한국복식에 표현된 흔들림과 떨림은 크게는 시각적인 관찰이 가능할 정도의 동적인 특징을 보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미동을 보이는 형태로 혹은 흔들림을 연상시키는 관념적인 양상으로 한국복식에 존재해 온 미적 특징의 하나였으며, 本考에서의 고찰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추론해 낼 수 있다.

첫째, 흔들림과 떨림은 上古時代 이래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복식에 지속적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傳統性의 美的價値를 지닌다. 上古時代의 귀걸이나 관식, 과대 등에 나타난 영락장식이나 요패 등으로 부터 현대 한복에 보이는 긴 옷고름이나 길이가 길어진 노리개에 이르기까지 사용된 소재와 표현된 부위는 다르지만 흔들림과 떨림이라는 속성은 지속적으로 애용되고 있다.

둘째, 흔들림과 떨림은 한국복식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 순수한 미적행위의 하나이며 멋이다. 이 멋은 變化와 調和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떨리기만 한다고 멋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복식 전체의 모습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절제된 변화의 美로서 멋이 되고 있다.

셋째, 흔들림과 떨림에 내재한 미적가치는 시대에 따라, 복식의 종류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 상고시대 특수계층의 복식에 나타난 흔들림과 떨림에는 신분을 상징하는 人格의 美, 주술적인 辟邪의 美와 신앙의 美 등이 강하게 작용한 미적가치였다면, 조선시대의 복식에 나타난 흔들림과 떨림의 경우에는 풍류사상에 근거한 自然美가 조형활동을 주도한 미적가

치로 판단된다.

넷째, 멋은 복식의 일부분이 高調되거나 변화를 부여하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흔들림과 떨림은 주로 복식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복식의 부속 부분으로 표현되어 있다. 저고리의 옷고름, 노리개의 술, 갓의 纓子, 부채의 扇錘 등은 모두 복식의 주체에 첨가되어 복식의 장식으로 사용된 경우이다. 이들의 흔들림과 떨림은 부착된 장식을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하여 착용자로 하여금 장식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사료된다.

흔들림과 미학적 위상에 대해 고찰함에 있어서 타 예술분야의 비교연구 부분의 미흡함은 본 연구의 아쉬운 점으로 남게 된다. 한 시대를 풍미한 미적의 지 내지 미의식은 복식 뿐만 아니라 같은 시대의 타예술에도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조형의지로 사료되기 때문에 복식에 표현된 흔들림과 떨림에 대한 고찰로부터 모색된 미적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인접 예술 분야의 비교고찰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후속과제로 타 예술분야에 표현된 흔들림과 떨림에 대한 연구의 출현을 기대해 본다.

參 考 文 獻

1. [한국어대사전](1976), 서울: 현문사, p. 62.
2. 앞 글, p. 496.
3. [한국미술전집 4 벽화](1978), 서울: 동화출판공사, p.62.
4. 앞 글, p. 67.
5. 앞 글, p. 77. 鎧馬塚 玄室西壁天井 받침 1층 鎧馬圖, 平壤.
6. 이형구(1990), "한국문화민족의 시베리아 기원설에 대한 재고", 동아일보, 5, -중국 길림성 榆樹縣 老河深墓 出土의 기원 전후의 부여시대 금귀고리를 중심으로 고찰.
7. [한국미술전집 2 고분미술](1977), 서울: 동아출판공사, p. 121.
8. [National Geography], "The Golden Hoard of Bactria", 1990, 3, pp. 50-75.
9. [한국미술전집 2 고분미술](1977), p. 92.
10. 앞 글, p.85
11. 김동욱(1985), [百濟의 服飾], 서울: 百濟文化開發

- 研究院, p.83.
12. 李如星(1947), [朝鮮服飾考], 서울: 白陽堂, p. 240.
 13. 앞 글, p. 221.
 14. 曹圭和(1982), [服飾美學], 서울: 修學社, p. 131.
 15. 國立慶州博物館(1989), [新羅의 土俑], 서울: 通川文化史, p.14.
 16. [한국미술전집, 2 고분미술](1977), p.130.
 17. 徐兢: 宣和奉使 高麗圖經, 卷二十 婦人 婢妾條 參照.
 18. 유희경(1980),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이화여자 대학교 출판부, p. 213.
 19. [韓國의 美 19 風俗畫], 서울: 중앙일보사, p. 144.
 20. 김희진(1979), [한국매듭], 서울: 高麗書籍株式會社, pp. 32-41.
 21. 유희경(1980), p. 526.
 22. 金英淑(1987), [朝鮮朝 末期 王室服飾], 서울: 民族文化文庫刊行社, p. 175.
 23. 全完吉(1987), [韓國化粧文化史] 서울: 悅話堂, p. 79.
 24. 金英淑(1987), pp. 152-5.
 25. 李如星(1947), p. 238.
 26. 정병호(1985), “민속무용에 나타난 한국인의 미의식”, [한국전통예술의 미의식],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 185.
 27. 금기숙(1988), “朝鮮時代 服飾에 表現된 韓國人의 美意識에 대한 研究”,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 학위 청구논문(미간행), p. 238.
 28. 앞 글, p. 285.
 29. 금기숙(1990), “朝鮮服飾美의 探究”, [服飾], Vol. 14, 서울: 韓國服飾學會, p. 175.
 30. 申石艸(1941), “멋 說”, [文章] 3月號, p. 149.

31. 趙芝熏(1964), 「韓國人과 文學思想」, 서울: 一潮閣, p.448.
31. 鄭炳昱(1959), “우리 文學의 傳統과 因襲”, [國文學散彙], 서울: 신구문화사, p. 35.
32. 趙芝熏(1964), p. 448.
33. 李如星(1947), p. 238.

ABSTRACT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swinging and trembling effect expressed in Korean costume from ancient days to the present.

The swinging is a term standing for gentle movements that are created and implied by the long ties, strings, tassels, pendants and hanging ornamentations. These attached elements of the costume move as the wearer moves. Trembling is a term expressing small vibrating movement which is created by the tiny decorative motifs attached to Korean costume. This little decorative elements were attached to the royal crown, earrings, necklaces even the sole of the metallic shoes for a change and to draw viewers attention.

The Swinging and Trembling have been used mainly to express the decorative desires. The Swinging on shaman costume is a expression of the aesthetics of evil's eye, while the Swinging shown on the costume of a scholar is expressing the beauty of personality and nature. In General during the Choson Period, the Swinging of the tassels, ribbons, string belts is a expression of the beauty of nature. Consequently the Swinging and the Trembling are the typical examples of the “Meot”(멋), Korean traditional aesthetics.